

의료인과 환자의 가정간호사업 인식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

한숙정 (삼육대학교 간호학과)

연구목적 : 본 연구는 가정간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일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, 가정간호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가정간호사업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.

연구방법 :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S병원의 수련의 이상 의사와 간호사,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31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.

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가정간호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과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된 총 3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12.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.

연구결과 :

1. 가정간호 사업 실시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, 간호사의 92.2%, 의사의 64.8%, 환자의 44.5%가 가정간호사업 실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. 가정간호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간호사의 62.88%와 의사의 21.1%가 '의학 또는 간호학 전문지' 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, 환자는 26.39%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.
2.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의 47.9%, 간호사의 70.7%, 환자의 86.1%가 가정간호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 필요한 이유로는 간호사, 의사, 환자 모두 '간호의 계속성 유지' 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. 그 외 간호사는 '장기적인 환자 관리 가능' , '병원감염 기회의 감소' , '가족 간병기회의 증가' 의 순으로 필요한 이유를 답하였고, 의사는 '보호자의 부담감 감소' , '가족 간병기회의 증가' 의 순이었다. 또한 환자는 '보호자의

부담감 감소' , '입원비 절감' , '가정에서 간호방법을 배울 수 있다'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 한편 가정간호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간호사와 의사는 '응급상황 대응의 불충분함' 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.

3. 가정간호 서비스 요구도는 서비스 제공 가능성 비율로 보았으며, 의사의 경우 투약관련 서비스에서 수액을 정맥주사로 주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진통제(78.9%)나 항암제의 주입(84.5%)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고 검사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에서 74.5%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고, 치료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'기관절개관 교환 및 관리(56.3%)' , '비위관 삽입(47.9%)' , '절개 및 배액(34.7%)' 의 순으로 가정간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.

결론 : 이상의 결과,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의 가정간호사업 실시 현황 및 제공 가능한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 및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,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